

예수님의 육신 선생님

- 작성일: 2010년 8월 21일 (토) 오전 2:40~4:05
- 작성자: 권세현 (서울 은혜교회)

새벽에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.

선생님의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짊어지고 대신 회개하고 싶다고 기도드리고 있었을 때 선생님의 십자가 중 섭리사가 선생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한 죄악이 있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.

그것을 회개하고 있던 중 지금 수료한 자들이나 새로 온 신입생들이 선생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또한 선생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이고, 선생님께 십자가의 고통을 더해드리는 것이라는 성령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.

그것을 깨닫고 깊이 기도하던 중 주신 말씀입니다.

* 예수님 말씀 *

그래, 아주 잘 깨달았다.

그것이 선생의 십자가 중 하나이다.

섭리사에 선생을 믿지 않는 불신들

그것으로 인해 선생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.

시대의 중심자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

내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역사를 펼치지 못하므로

그 죄악들이 없어져야 했다.

하지만 그 불신들을 누가 청산 할 수 있었겠느냐.

너희도 모르게 오해하고

100%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

너희가 어찌 깨닫고 회개 할 수 있었겠느냐.

어떤 자는 아예 대놓고 선생을 불신하였는데

그 자가 자기의 죄악을 어찌 회개 할 수 있었겠느냐.

선생을 불신하는 것은 나를 불신하는 것이고

나를 온전히 100% 완벽히 사랑하는 자라고

말할 수 없다.

그렇기에 온전한 휴거를 맞지 못하는 자가 된다.

그렇기에 선생은

계속 악평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.

너희들이 만든 조건으로 사탄들이 계속 틈타게 되었다.

하지만 선생은 그 십자가를 몸소 지며

끊임없이 감사 감격 하며 아무 말 없이

심정의 십자가를 지며 섭리를 뛰어왔다.

하지만 섭리의 불신은 점점 커져갔고

급기야 선생이 세우고 하늘이 중심으로 세운 자를 불신하기 시작했다.

결국 그 불신의 죄악들은 점점 불어났고

선생 지금 그 길을 가게 된 것이다.

선생의 십자가로 겨우 섭리사의 선악이 분립되었고 불신의 죄악들이 많이 청산되었다.

겨우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.

하지만 지금 섭리에 또 다시

이런 불신들이 생겨나고 있다.

최근에 수료한 신입생들이

선생을 100%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.

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자는

선생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

선생을 나와 같이 귀히 보는 자이다.

하지만 최근에 전도된 신입생들은

100% 완전히 선생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.

선생을 진정 사랑하는 신랑으로

대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.

그것은 결국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이고

그(신입생)가 이루어야 할 휴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.

선생이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건만

또 다시 불신들이 생겨나고 있구나.

이 불신은 선생을 싫어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.

선생을 믿는다, 존경한다 하지만

0.1%의 부족함이 있어서

선생을 조금은 의심하는 때도 있고

이 역사가 정말 100% 맞는지 의심하는 경우도

종종 있는 것을 말한다.

마음으로 한두 번 생각하는 이 불신은

해결되지 못하고 온전히 사라지지 않으면

또 다른 불신을 낳는다.

그 십자가로 선생은

십자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.

신입생들 중 마음속에 단 한번이라도

이 역사가 정말 맞는지 생각 했던 자 있을 것이다.

선생이 정말 온전한 신부인지

한번쯤 생각한 자 있을 것이다.

악평을 보았거나 들었던 것이

‘정말 진짜일까?’ 라고

한번쯤 생각한 신입생들이 있을 것이다.

심지어 어떤 자는

선생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예배를 드리고

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.

선생을 제대로 모르면서
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랑은
 내게는 사랑이 아니다.
 나는 100%의 온전한 사랑을 원한다.
 나의 육신인 선생을 모르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
 내 그 사랑을 기뻐 받을 수 있겠느냐.

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해주겠다.
 내가 결혼해야 할 신랑이 있다.
 그 신랑의 영은 너무 사랑한다.
 영과는 늘 대화하길 원하는데
 육신은 사랑하지 못하고
 육신과 대화를 안 하고 살 수 있느냐?
 너희는 사람의 영과 먼저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?
 너희가 육신인데
 어찌 영과 먼저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.
 먼저 육을 통해 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
 이치이고 원리이다.
 영은 육을 통해서만 나아 올 수 있다.
 너희들도 나의 영을 사랑하게 된 것이
 너희의 육과 나의 영의 만남이라 생각 하느냐?
 너희의 육이 보다
 육신과 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나를 만났고
 그것을 통해 혼이 성장되어 영이 성장되게 된 것이다.

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나.
 너의 선생의 육신이다.
 그 말씀은 선생의 조건으로
 선생의 몸부림으로 받은
 선생의 걸작품이다.
 하늘의 걸작품이며 나의 자랑이다.
 하늘의 귀한 인봉을 풀 수 있는 것은
 내가 허락해야 하고
 선생의 피눈물 어린 조건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.

너희는 말씀으로 나를 만나서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.
 말씀을 통해 나와 통할 수 있게 되었다.
 그런데 나와 사랑에 빠지게 해준 자,
 말씀으로 나를 만나게 해준 선생은
 왜 나와 같이 사랑하지 못하느냐.
 내 영과 육을 다 사랑해야
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않느냐.
 나의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이다.
 난 육이 없으면 역사할 수 없다.
 너희들과 통할 수가 없다.

나의 육, 나의 말씀 즉 선생이 없었다면
 이 시대를 깨울 수 없었고
 재림을 온전히 준비할 수 없었다.
 나의 육신이 없는 역사는 불가능 하구나.

내가 영으로 재림하지만
 온전한 영적 재림을 위해서는
 보다 육적인 발판이 필요했다.
 그 발판은 바로 선생이었다.
 그런 선생을 한번이라도 믿지 못했던 마음,
 의심했던 마음, 불신했던 마음,
 그 마음들이 나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
 선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.

신입생들이 왜 제대로 못 깨닫는 줄 아느냐?
 먼저 온 너희들이
 제대로 증거 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.
 이 사실이 더 가슴이 아프다.

너희가 선생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온전히 전하라.
 깨닫는 것과 전하는 것은 다르다.
 내가 이해한 것을 상대방도 이해하게 하려면
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
 이치에 맞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.
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.
 더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한다.

선생을 도대체 어찌 증거 해야 하냐고
 고민 하는 자들 많이 있지?
 그 답은 20개론 말씀과
 최근에 선포되는 주일, 수요일, 금요일, 새벽 잠언 말씀이다.
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나 예수이며 선생이다.
 그 말씀 너희가 온전히 깨닫고
 온전히 이해하고
 그 속에서 선생에 대한 것들
 선생을 증거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.
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연구해서 전해야 한다.

나의 목표는
 온전한 신부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다.
 온전한 휴거는 나와 온전한 사랑이다.
 나와 온전한 사랑은
 나의 영과 육을 100% 사랑하는 것이다.
 내 육신과 100% 사랑하지 못하는데

어찌 내 영과의 100% 사랑이 가능 할 수 있겠느냐.
그러니 어서 사랑을 회복하라.
나의 육과의 사랑을 회복하라.
나의 영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데
그로 인해 내 육과의 사랑에
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아프구나.

나의 영, 혼, 육을 온전히 사랑해다오.
나의 영은 바로 나 예수의 영이고
나의 육은 선생이고 나의 혼은 말씀이다.
선생 그 자체가 나의 육신이 되고
그 육신과 나를 연결 해주는 매개체가
바로 말씀이지 않느냐.

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러하니라.
선생 자체가 말씀도 되니
선생은 나의 육신의 역할도 하며
내 혼적인 역할도 하느니라. 알겠느냐?
이 같이 선생은 바로
나 예수의 지체이며 바로 나이다.
영과 혼과 육이 서로 붙어있다고 배우지 않았느냐.
이와 같이 나와 선생은 붙어있으며
떼어서 따로 따로 생각 할 수 없느니라.

내가 말하는 불신은
눈에 보이는 큰 것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.
마음속으로 단 1초라도 생각했던
마음들을 말하는 것이다.
신입생들 뿐 아니라 기존 회원들도
0.001%라도, 1초라도
섭리사에 대해 선생에 대해
불신했던 생각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여라.
이는 선생이 지고 있는 십자가 중에
큰 십자가니라.
선생을 위해 기도하면서
그 오해 그 작은 죄악들 회개하지 않고
그 기도가 상달되었느냐?
내가 그 기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겠느냐?
너희가 기도한다고 해서
그 기도가 상달 되는 것이 아니다.
내 마음에 합당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다.

내 육신이 언제까지 그 죄를 담당하고
말없이 홀로 눈물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겠느냐.
내 팔이 너무 아프다.

내 무릎도 너무 아프고 내 눈도 너무 아프다.
내 손가락 굳고, 굳고, 굳어가는 구나.
내 육신 살려주어라.
내 육이 너무 아프다.
내가 다시 올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.
그러니 어서 속히 회개 하여라.
내 육신 십자가 고통을 당하며
너희 휴거시키기 위해 몸부림이다.
치절한 몸부림이로구나.
사랑의 몸부림이다.
사랑 아니면 어찌 그런 몸부림을 칠 수 있겠느냐.
너희도 나 사랑하니 어서 몸부림 치거라.
어서 나의 육신 제대로 가르치고
온전히 의심도 흠도 점도 없게
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라.
내 육신 아프지만 그래도 천국에서는 아프지 않으니까
이 고통 잠깐이면 영원히 행복하니까
내 육신도 참고 나도 참고
그 소망으로 참고 이기고 있다.

내가 너희 너무 사랑해.
너무 사랑한다.
내 육신도 나처럼 너희 너무 사랑한다. 너무나.
너희 그 사랑 모를거야.
엄청난 사랑이다.
내가 봐도 눈물의 사랑이다.
그래도 행복하다. 너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.
휴거되려면 한 올도 점도 없이 완벽해야 되니
회개하라는 것이야.
너희 사랑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야 알지?
너희 회개 하지 않으면
내 육신의 고통 아무 소용없고
너희 휴거되지 못하니
그 고통은 내가 십자가 지었던 고통과
지금 내 육신이 받는 고통을 합친 것과
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이다.
그러니 나 이렇게 끝까지 너희 포기하지 않고
내 육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
너희 십자가 짊어지고 오늘도 행복 속에서
눈물로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.

내 신부들, 사랑들, 나의 소망들, 희망들 사랑한다.
우리 영원히 사랑하자.
그곳에선 아픔도 서러움도 모두 잊고 영원히 사랑하자.

*** 선생님 말씀 ***

사랑하는 섭리사 신부들, 나 선생이에요.
내가 그곳에 있으니 내 환경 보면서
조금은 나를 못 믿을 때도 있죠?
내 환경을 보지 말고
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보며 나를 바라봐 줘요.
월명동을 보고, 지난 50년 동안
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보며 나를 믿어줘요.
그것만 제대로 알아도
나에 대해 알 수 있고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.
그래서 요새 계속 말씀으로
월명동과 지난섭리 50년의 역사에 대해
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예요.

섭리사 신부들에게
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알려줄게요.
지금도 앞으로 계속 내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
최선을 다해서 알려줄게요.

우리 신부들 내 사랑들,
그러니까 걱정 말고
그 말씀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.
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테니
여러분들도 꼭 최선을 다해야 해요.
그럼 우리 만날 수 있을 거예요.
영으로 육으로도 다 만날 수 있을 테니
우리 그날을 위해 서로 힘내요.

난 괜찮아요.
난 걱정하지 말아요.
난 여러분들이, 우리 신부들 걱정이에요.
내가 직접 말로하면 내가 직접 보여주면
더 쉬울 텐데 글로 표현하니
내가 전달하려는 것이 제대로 전달되는지
늘 그 걱정이에요.
혹시 한명이라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어쩌나 하고
노심초사 전전긍긍이에요.
심정타서 설명 길게 해 주고
하나라도 더 이야기하려고
더 적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요.
매 순간 노력속의 몸부림이에요.
그러니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
주님께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읽어보고
여러분들도 더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.

나의 노력과 우리 신부들의 노력이 만나야
사랑이 창조될 거예요.

우리 꼭 약속해요.
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
꼭 약속해요. 알겠죠?
도장도 찍어요.
도장까지 찍었으니 꼭 하는 거예요.
포기하지 말아요.
나도 우리 신부들 보면서 포기 하지 않을게요.
사랑해요. 신부들 너무 사랑해요.
내 사랑 포기하지 말아요.

신부들 파이팅!
우리 꼭 영원한 사랑해요. 너무 사랑해요.
안녕. 신부들 우리 꼭 만나요.

*** 예수님 말씀 ***

섭리사 신부들 사랑한다. 사랑해.
우리 영원한 사랑하자. 약속 꼭 지키는 거지?
약속 꼭 지키자. 사랑한다. 사랑해. 너무 사랑해. 안녕.